

스마트 교육 시대의 화법 교육

전은주 부산대학교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머리말
- II. 스마트 교육의 개념과 화법 교육의 생태학적 변화
- III. 화법 교육 내용의 확장
- IV. 화법 교육 방법의 개선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요구하는 교수-학습 체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어과 화법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교육이라는 새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화법 교육에 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¹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1년 6월 정부에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스마트 교육의 적용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입장이 나누어진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도기의 시점에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적시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1 본고에서는 구두 의사소통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통칭하는 의미로 ‘화법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공통교육과정 국어과의 하위 영역 표시를 위해서는 ‘듣기·말하기(영역)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학습의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시기 상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서영민 · 이영준, 2011: 205).

그러나 이후 2011년 11월에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이 발표되었고, 스마트 스쿨 모델 학교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스마트 교육 모형 개발,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는 이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진행형이 되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며,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등의 정책 추진 내용을 밝히고 있어 교육 환경 자체에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

교육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등장을 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교에 스마트 기기를 구비하게 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게 하는 등의 외형적인 변화로만 그친다면 이는 교육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정책이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외적 변화와 함께 학습자에게 필요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와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추출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교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적 변화를 위한 연구와 연수 등의 정책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스마트 교육이라는 교육 생태학적 변화가 국어과 화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해 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스마트 교육의 적용과 실행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스마트 교육의 개념과 화법 교육의 생태학적 변화

1. 스마트 교육의 개념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흥미 있게 학습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일컫는다. 스마트(SMART) 교육은 ‘자기 주도적(Self-directed), 동기 부여가 된(Motivated),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Adaptive), 자료가 풍부한(Resource enriched), 정보 기술을 활용한(Technology embedded)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아 영어 머리글자말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교과부(2011)에서는 스마트 교육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방법(pedagogy), 교육과정(curriculum), 평가(assessment), 교사 등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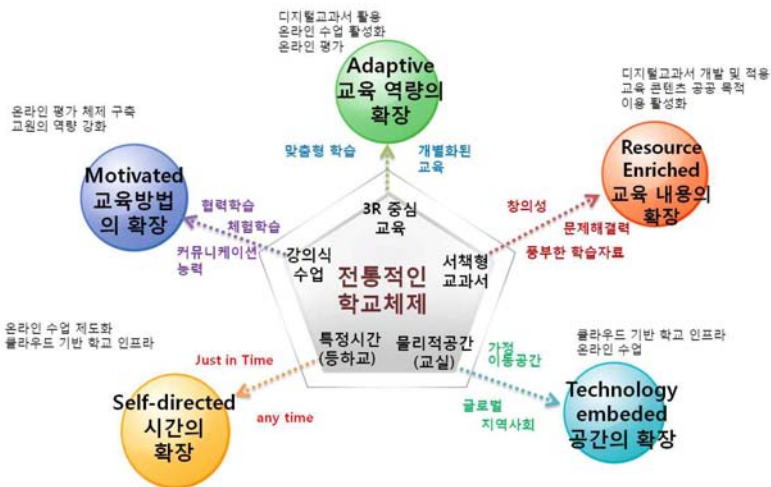


그림 1. 기존 교육과 스마트 교육의 차이(교육과학기술부, 2011)

최상의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소셜 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접목한 학습 형태로 정의한 바 있다(김영애, 2011: 4).

위 <그림 1>은 기존 교육과 스마트 교육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스마트 교육의 개념을 잘 살필 수 있다. 스마트 교육은 전통적인 학교 체제에서 행해지던 교육의 특성을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업 시간에 서책형 교과서로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심 교육, 강의식 교육이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교육을, 앞서 언급한 SMART의 5가지 특성을 담은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① 공간의 확장: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 ICT를 활용해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학습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교육 환경 마련.
- ② 시간의 확장: 온라인 수업,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를 통해 언제나 원할 때 학습의 기회 제공.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함.
- ③ 교육 내용의 확장: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자 개개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학습 자료 제공.
- ④ 교육 방법의 확장: 학교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ICT를 활용한 협력학습, 체험학습, 개별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 ⑤ 교육 역량의 확장: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7C를 배양²

그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 개발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지나치게 이전에 행해지던 교육과 스마트 교육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다 보니 교육에서 항존적 가

2 7C는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Collaboration and leadership, Cross-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CT literacy, Career and life skills'이다.

치를 지니는 부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 면도 있다.

2. 화법 교육의 생태학적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읽기와 쓰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은 예나 지금이나 늘 중요하며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할 것이다.³ 오히려 문식성 교육은 다중문식성(multiliteracy) 교육으로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한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국어교육계에서도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국어 교육의 방향 탐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서혁(2013: 94)에서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할 국어 교과 핵심 역량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의사소통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 환경에서 중시되는 소통의 맥락 파악, 비판적·창의적 사고 함양, 윤리적 소통의 측면을 반영하여 ‘다중담화텍스트 기반 의사소통 역량, 기초학습 역량 및 고등사고 역량, 정보처리 역량, 민주시민성과 디지털 윤리, 문화적 소양과 심미적 수용 창작 역량’으로 추출한 바 있다. 최숙기(2013: 132)는 스마트 교육이 국어 교육 차원에서 접목되는 양상이 교수 학습 차원에서 명료히 드러나며, 이는 정보 통신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문식성 활동의 변화를 의사소통 방식의 확대로 접근하는 방향과 새로운 문식성 활동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5가지 핵심 특징을 가진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국어교육, 특

3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만큼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정보를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들을 때는 듣기 활동도 하지만 대개 받은 메시지나 검색된 정보를 읽는 활동과, 이에 대해 반응하기 위해 쓰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히 화법 교육은 종전과 어떤 생태학적 차이가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화법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교육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환경적 변화는 다양한 화법 교수-학습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진 구두 의사소통은 읽기, 쓰기와 달리 의사소통 과정에 대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구두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 메시지 이상으로 반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의미 생성과 이해에 중요하므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담화 참여자가 함께 공유할 때 소통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미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 대부분의 구두 의사소통은 참여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물리적 시간이 소용된다. 이러한 구두 의사소통의 특성은 화법 교수-학습에서 학습 자료의 사용과 학습 활동의 수행에 큰 제한점을 야기한다.⁴ 스마트 교육 환경이 화법 교수-학습이 가진 원천적 제한점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에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교수-학습 방법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바뀐 교실 환경으로 인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도 있다. 즉 교육 환경이 바뀌므로 인해 화법 교수-학습 방법의 가능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법 교수-학습 자료의 실재성 수준이 종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교과서 체제에서

4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문자로 인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읽기, 쓰기와 달리 화법 교수-학습에서는 담화 수행 과정에 대한 실제 예를 문자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실 내 모든 학습자가 읽기, 쓰기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화법 교수-학습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말하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다. 어떤 학습자가 화자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학습자는 청자 혹은 청중이 되어야 하며, 토론이나 토의 등 담화 유형에 대한 교수-학습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몇 명의 학습자만 이를 실제로 경험을 해 볼 수 있고 나머지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의 수행을 지켜보는 것으로 수행을 대체하는 셈이 된다.

는 음성 지원, 동영상 지원이 자유로워서 화법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교과서 상에서 바로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다.⁵ 종래 화법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화법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상에서 적절한 담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책형 교과서로 연설에 대하여 배울 때, 전사된 연설 자료로는 연설 수행 시 전달되는 비언어적, 반언어적 메시지의 힘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다.⁶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체제에서는 음성과 동작, 장면 등을 담은 실제 영상 자료가 제시되고, 필요에 따라 영상 자료에 교육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자막으로 넣을 수도 있다. 결국 교수-학습 자료 자체가 구두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실제적이고, 자막 처리, 편집 등도 가능하여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디지털 교과서 체제로의 변화는 교과서 자체로도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생태학적 차이를 유발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현재의 학습자는 과거 학습자보다 정보 통신 기기 사용에 능하여 매체를 활용한 구두 의사소통 활동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 역시 차이점이다. 현재의 학습자는 디지털 세상에서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명명될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별로 없다. 현재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⁷ 그러나 현재의 학습자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큰 불편이 없다고 해서 이들이 적절한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보기 어렵다. 디지털 의사소통에

5 현재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구두 의사소통 관련 자료를 학습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별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6 전사 자료에 비언어, 반언어적 표현 부분을 ‘두 손을 내밀며, 큰 소리로’ 등과 같이 묘사하여 제시한다고, 실제 장면(혹은 동영상)에서 보고 들으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7 이 학습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 지켜야 할 언어 예절, 윤리가 있는데, 사용자가 디지털 의사소통의 관습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의 학습자가 디지털 기기를 종전의 학습자보다 잘 사용하여 매체 조작에 능숙하지만 화법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능이 실제 화법 수행의 질을 높이고 담화 참여자의 이해와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가진 매체 사용 기능을 구두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의 의사소통 채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구두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대면 의사소통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구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 의사소통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통신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과 대면 의사소통, 전화 의사소통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상황,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반드시 구두로, 혹은 대면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또래 집단과 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여 의사소통의 채널 선택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법 교육이 일어나는 교실 공간에는 이처럼 구두 의사소통에서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와 이에 대하여 별 인식이 없는 학생이 공존하고 있다. 교실 공간을 벗어나도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구두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이민자 집단과 이에 대해 별 인식이 없는 디지털 원주민이 서로 다른 인식의 테두리에서 의사소통을 하다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사회 환경,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습자 속성의 차이 앞에서 과연 화법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구두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면대면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화법 교육 목표의 전형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재 디지털 정보 기술과 디지털 문화에 의해 생성된 새

로운 구두 의사소통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과거 함께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것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통신 등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개인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대화를 한다. 이러한 대화 과정은 문자를 이용하나 엄밀하게 문자 의사소통 방식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구두 의사소통 방식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여러 기능이 통합된 복합 양식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또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인터넷의 기술의 발달은 동영상 제작과 공유가 쉬워졌고,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을 즐겨하고, 친구들이 만든 동영상을 즐겨 본다. 학습자에 따라서는 대인 의사소통 능력과 조직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 이 같은 대량 의사소통(mass communication) 능력에까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학교 교육이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에게 향후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화법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구두 의사소통 능력 신장은 면대면 의사소통 능력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대량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여러 교육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 변화로 볼 때 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디지털 원주민인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상태에 대한 점검과 이들의 현재와 미래 의사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화법 교수-학습 차원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화법 교육 내용의 확장

1.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스마트 교육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정보 통신 기술력으로 교육 환경 자체를 변화하게 하고 이것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교육 체제 전반에 변화를 지향하므로 이는 교수-학습의 방법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 내용에 이미 매체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기기로 생성되어 소통되는 자료와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한 교육 방법이 학습자에게 더 이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스마트 교육이 교수-학습 방법적 전환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종전의 매체 활용 교육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스마트 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라면 스마트 교육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교육 시대의 화법 교육의 목표는 면대면 상황에서의 구두 의사소통을 넘어 대량 의사소통에서의 구두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인터뷰나 방송 보도는 대개 일반인과 무관한 것이다. 간혹 뉴스 프로그램의, 학교나 학생 관련 보도에서 학생 인터뷰 장면을 보면 말하는 사람이 당황하거나 어색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부자연스럽거나 유창하지 못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지금도 지상파 방송은 특별한 사람이 출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직업으로 ‘방송인’이라는 표현을 다 쓸 정도로 매체를 통한 대량 의사소통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환경의 변화는 1인 방송국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으며, 누구나 원하면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대량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개인 취미와 적성을 살린 건전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중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은 그러한 실제 예를 보여 주는 한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나만의 방송국 차려볼까

- 게임 중계·다이어트 등 1인 미디어 제작자들 시청자 수만 명 확보...고소득 창출하기도

‘양띵’(양지영). 누적 시청자 5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BJ인 그녀는 ‘2012 아프리카TV 방송 대상’을 휩쓸고 최근에는 ‘전 세계 유튜브 50인’에 뽑히기도 했다. 양띵은 ‘마인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게임을 중계하는 방송을 통해 동시접속자 3만 명을 동원하는 ‘BJ계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취미 삼아 방송을 시작했다는 양지영 씨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프로 BJ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동영상·방송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촬영·출연·편집·유통까지 혼자서 진행하는 ‘1인 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와 재능만 있으면 자본이 없더라도 인기 스타가 되는 길이 열렸다. (중략)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나동현 씨도 대표적인 1인 제작자다. 대도서관 방송은 하루 6000명 시청자 방문, 유튜브 채널 개설 6개월 만에 5000만 이상 조회, 월 1300만원 수익 등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제작해 이름을 알렸다. 맛깔나는 입담으로 지상파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중략)

이들 1인 제작자는 기업과 손을 잡고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인기 콘텐츠를 확보하고, 1인 제작자들은 본격 프로 제작자로 데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CJ E&M은 ‘콘텐츠 제작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재야’ 인기

제작자들과 제휴하고 있다. 1인 제작자들에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3.11.29

위 기사에 소개된 현재 이미 유명해진 몇몇 BJ(Broadcasting Jacky)의 사례는 아이디어와 대량 의사소통 능력, 스마트 기기 사용 기능 등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화법 교육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미로 시작한 인터넷 방송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된 이들의 경우를 보면 방송을 통해 대중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량 의사소통 능력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들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중들이 공감하기 쉽게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의 사회적 성취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대량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고, 취미 생활, 여가 활동 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를 동경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능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방송 마이크를 들면 긴장을 하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카메라 렌즈를 자연스럽게 쳐다보며 말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말하기 상황이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대량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 1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달할 내용을 계획하고, 구성하여 진행을 해 보게 하거나, 학급 단위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사를 구성해서 보도해 보게 하는 것 등을 적용해 볼 만하다. 또 저질 방송, 표절 방송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이를 예방할 있도록 대량 의사소통 생산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 의식, 태도 등에 대한 교육 역시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만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화법 교육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10학년 말하기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성

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가 있었다.

표 1.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영역 중 대량 의사소통 관련 내용(교육인적자원부, 2007: 61)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0-말 (4)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방송 보도의 특성 이해하기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재 내용 선정하기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보도 내용 편집하기 ○방송의 특성을 살려 보도물 제작하기

위 성취 기준은 10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에서, 생활 주변에서 취재하여 보도할 만한 내용을 찾아 내용을 구성하여 방송 보도 형식으로 말해 보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다. ‘내용 요소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성취 기준은 방송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취재 내용을 선정하고, 보도 내용을 잘 구성하고 편집하여, 보도하는 것을 제작해 보는 등의 내용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데, 이는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사라졌다.⁸ 아마 교육과정 개정 당시 국어과의 성취 기준 수가 대폭 감소되고,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통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실제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제외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것은 교수-학습 시 방송 시스템을

8 이 성취 기준은 2009 국어과 교육과정에 그대로 이어졌고, 2013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김수진(2013)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성취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학습안으로, 이 수업은 ‘유스트림(ustream) 앱을 활용한 실시간 인터넷 뉴스 보도하기’를 국어 수업에 수행해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생들이 모듈별로 보도할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준비한 뒤 방송 기사를 쓰고 보도하기를 연습한 뒤, 교실에 있는 컴퓨터로 유스트림 앱을 작동시켜 교실이 곧 인터넷 방송국이 되게 만든 후, 모듈별로 자신들이 준비한 방송을 실제 하게 하고 평가하는 방법이었다. 수업 후 학생들의 수업평가를 보면, 무척 흥미 있고 재미있으며 의미있는 수업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스마트 교육이 화법 교육에 적용된 좋은 사례이다.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교실 환경 지원이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 말하기의 실제 성과 학습의 효용성 정도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교육 내용이다. 교실에서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방송 보도를 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실제 방송 보도하기는 아니므로 활동의 실제성은 결여되어 있다. 이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한 학습활동의 실제성을 가장 잘 살리는 교수-학습 환경은 교실 안이 실제 방송 보도국 스튜디오가 되고 학생들의 방송 보도가 그대로 녹화되어 실시간으로 익명의 대중에게 보도되는 시스템이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이같이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다시 선정하여 성취 기준의 취지에 맞게 교수-학습을 실행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대인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담화 유형이 다양하듯이 대량 의사소통에서의 담화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방송 보도하기는 대량 의사소통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담화 유형의 하나일 뿐이다. 방송 인터뷰, 방송 토론, 방송 토의 등도 대량 의사소통에서 흔히 살필 수 있는 담화 유형이다. 따라서 듣기·말하기 영역 혹은 화법 영역에서 담화 유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담화 수행의 상황을 대인 의사소통 상황, 조직 의사소통 상황으로만 두지 않고 대량 의사소통 상황으로 확장하여 학습 활동을 해 보게 한다면 담화 유형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구어적 다중담화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교육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구어적 다중담화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교육 역시 가능하다. 스마트 환경으로의 전환은 생태학적으로 학습자에게 구두 의사소통 능력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

심 역량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007년 8개의 핵심역량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건전한 태도 등을 핵심 역량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서혁(2013)에서는 국내외 핵심역량 교육과정 논의를 종합하여 스마트 환경에서의 국어 교과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다중담화텍스트 기반 의사소통 역량’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성취 기준의 예로 ‘구어적 다중담화텍스트의 특성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이해, 표현할 수 있다’를 예시한 바 있다. 즉 이는 문어와 구어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야 성취가 가능한 것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에 따라 화법 교육의 내용이 확장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론, 토의는 구두 의사소통에서 행해지는 담화 유형이며 면대면 조직 의사소통에 해당하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웹기반⁹ 토론, 토의 역시 가능하다. 면대면 구두 의사소통과 웹기반 구어적 다중담화텍스트 수용과 생산 과정에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이미 이러한 다중담화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 수용할 만하다.

웹기반 대화, 토론, 토의 등은 실제 대면해서 구두로 하는 대화, 토론, 토의 등과 동일한 담화 유형으로서의 공통점도 있지만 채널이 다름에서 기인하는 차이점도 있다. 대면 구두 의사소통과 웹기반 의사소통은 모두 일반적인 대인 의사소통에서 지켜지는 예의와 협력 등의 규칙이 잘 지켜지며, 구어 표현이 가진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토론, 토의 등은 그 담화 유형이 가진 말하기 방식이 잘 지켜지는 편이다. 그러나 대면 구두 의사소통이 말을 주고받을 때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에 반해 웹기반 의사소통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또 대면 구두 의사소통에서는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의미 전달, 감정 표현에 중요한 기능을 하나 웹기반

9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도 웹기반 서비스에 해당한다.

의사소통에서는 문자로 소통하므로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없다. 웹기반 의사소통에서 글로 묘사하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대신하고자 하나 정보의 진실성이 낮다. 대면 구두 의사소통의 경우 참여자 간의 순서교대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이 어색해지나 웹기반 의사소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면 구두 의사소통은 순간적으로 발화가 되므로 표현과 이해를 위해 사고할 시간이 극히 짧음에 비해 웹기반 의사소통의 경우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대면 구두 의사소통은 청중이 많을 때 화자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으나, 웹기반 의사소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대면 구두 의사소통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남지 않으나 웹기반 의사소통의 경우 문자로 모든 내용이 남는다.

표 2. 대면 구두 의사소통과 웹기반 의사소통의 차이

특징	대면 구두 의사소통	웹기반 의사소통
의사소통 규칙 (예의와 협력)	강함	강함
구어적 특성	있음	있음
담화 관습	잘 지켜짐	잘 지켜짐
표현 방식(채널)	말	글(문자)
시간, 공간 제약	있음	없음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있음	없음
감정 정보	쉽게 드러남, 진실성이 높음	잘 드러나지 않음, 진실성이 낮음
순서교대 간격	바로 이어짐,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이 어색해짐	바로 이어지기도 하나 그렇지 않아도 됨
사고 여유	생각할 시간이 짧음	생각할 시간이 김
심리적 부담	청중이 많을수록 큼	별로 없음
의사소통 흔적	기록으로 남지 않음	기록으로 남음

위 <표 2>를 보면 대면 구두 의사소통과 웹기반 의사소통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법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대면 구두 의사소통 방법뿐만 아니라 구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웹기반 의사소통 방법도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고 막말을 하거나 표현 내용과 형식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히 웹기반 의사소통은 문자로 기록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내용과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하며, 상대방이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충분히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교수-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웹기반 토론, 토의가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하다. 웹기반 토론, 토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구두 의사소통에서 행해지는 토론, 토의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웹기반 토론, 토의한다면 이는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다.¹⁰⁾

3. 매체 사용과 채널 선택 전략에 대한 교육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담화 환경과 참여자를 고려한 매체 사용 전략과 채널 선택 전략에 대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말을 할 때 전달 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과 같은 대중 앞에서 말하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기소개, 정보전달 연설, 설득 연설 등에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스마트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자

10 이에 대해서는 IV장 2절 참조.

료를 이해하고 이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언제 사용할 것인가 등과 같은 매체 사용 전략을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 내용은 이미 매체 교육과 접목이 되어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 일정 부분 수용이 되어 있다.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다양한 매체를 보거나 듣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3-4학년군),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5-6학년군),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알고, 매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한다(5-6학년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7-9학년군)’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 시대, 스마트 교육 환경이라는 표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의 종류가 더 다양해졌고 교실 환경에서 쉽게 구동할 수 있는 것도 많으므로 말할 내용에 맞게 자료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는 교육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면 구두 의사소통과 전화 의사소통,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 등이 모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의미 전달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사과나 부탁을 할 때,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을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 말을 하는 입장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겠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면 의사소통의 상황이 가장 예의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느껴질 것이다. 특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대면 의사소통으로 할 것인가 전화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나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보면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가장 잘 맞는 채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화법 교육 방법의 개선

1. 교수-학습 자료 제시 방법의 개선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 동기를 가지게 하며,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과거 ICT 활용 교육, 이러닝, 유러닝 때보다 발전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법 교육에서도 스마트 교육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교육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화법 교육의 경우, 교육 자료 제시 방법에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책형 국어 교과서로 화법 교육을 할 때 교과서에 담화 수행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를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책형 교과서는 지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두 의사소통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줄 수도 없으며, 이를 전사해서 보여 줄 경우 반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제대로 제시할 수도 없었다. 또 구두 의사소통 자료를 전사할 경우, 자료의 양이 많아서 교과서에 그대로 실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결국은 담화 유형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가공된 자료를, 그마저 축약해서 보여 주는 현실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¹¹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교사가 별도의 교

11 화법 교육에서 대화, 토론, 토의 등의 담화 유형에 대하여 교수-학습을 할 때 가공된 담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료가 문제가 많음을 교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구두 의사소통의 장면과 과정을 문자로 전사하여 옮기는 데서 기인한 것과 실체가 아닌 가상의 구두 의사소통 과정을 집필하는 데서

수-학습 자료로 학습할 담화 유형의 실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학습해야 할 담화 유형이 실제 소통되는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된다면 서책형 교과서에서 제시될 수 없었던 구두 의사소통 담화를 동영상으로 직접 보여 주면서 동시에 화면에 제시된 자료에서 교육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자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간 혹은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금보다 효과적인 교육 자료 제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교육의 목적에 맞게 담화 영상 자료를 편집해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해야 할 담화 유형과 관련된 실제 구두 의사소통 자료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이 풍부한 자료를 통한 간접 경험은 학습자의 실전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담화 참여자 간의 사전 의사소통 방법 개선

화법 교육을 할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담화 수행 과정에 학습자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장려함으로써 질적으로 더 우수한 담화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웹기반 토론, 토의 학습을 교수-학습 내용 측면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토론, 토의와 같은 조직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의 사전 의사소통을 통해 논제 조절,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데, 국어 수업 시간에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또 학습자마다 사정이 달라 방과 후에 모둠 구성원이 시간을 맞추어 모두 함께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것 역시 어렵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자 간의 사전

기인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사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는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제대로 옮길 수 없다는 문제이다. 또 집필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는 부자연스러움과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가공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교사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재한·서희석(2012: 240)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만 토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토의를 처음 접하거나, 학생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급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토의 학습을 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래 과정의 ①~⑤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① 주제 제시하기
- ② 토의 주제에 따른 의견 나누기(모둠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
- ③ 의견 정리하기—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 된 것을 각 의견별로 SNS에 정리
- ④ 의견 검토하기
- ⑤ 최종 의견 정하기
- ⑥ 토의 결과 기록하기(학급 공간에 각 모둠의 1차 토의 결과를 기록 정리)
- ⑦ 토의 결과 발표하기(모둠별로 토의 과정 및 결과를 구글 문서에 정리하여 발표함)

교사가 ①의 단계에서 주제를 주면 학생들은 ②~⑤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모둠별로 토의를 진행하고, 이를 교실에서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토의하는 과정에 나온 의견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추후에 토의 과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토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토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실제 구두로 대면 상황에서 토의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면 구두 의사소통과 웹기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으므로 듣기·말하기 영역 혹은 화법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대면 상황에서 구두로 토의를 하기 전 단계 학습으로 한 뒤 다시 주제를 정해서 토의를 실제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중 평가 혹은 상호평가 방법의 개선

화법 교수-학습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말하기에 대하여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며, 평가하는지를 아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대개 학습자는 말하기 수행에서 범한 실수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실수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가 자기 말하기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복되면 말하기 효능감 역시 저하가 되며 이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하기 수행에 대하여 청중들이 격려해 주고 장점을 말해 주는 긍정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발표 혹은 프레젠테이션 이후 청중이 이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소셜 네트워크로 보내게 하면 기존의 청중 평가 이후 평가 내용을 종이로 받아볼 때보다 편리하게 동료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다.

또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청중의 의견, 판정 등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여 답화 수행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토론의 경우, 토론 후 청중의 평가를 통해 어느 팀이 승리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청중이 자신이 가진 스마트 기기의 학습자 디바이스에 의견을 표시하면 교사의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이 종합되어 토론의 결과를 바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토론 이전에 논제에 대한 청중의 사전 태도를 조사하고 토론 이후에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 역시 종전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중의 토론에 대한 서술적 평가 역시 지면으로 받지 않고 학습자 디바이스에 올리게 하고 이를 참여자들과 교사가 함께 보면서 토론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12 이러한 방법은 교수-학습 후 형성평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스마트폰에 소크라티브(socrative) 앱을 실행시켜 준비된 형성평가 문항에 답을 하면, 교사는

4. 녹화기록법의 개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화법 교수-학습 방법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화법교육에서 녹화기록법은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캠코더, 테이프 등을 준비해야 하고 녹화된 자료를 재생할 때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담화 수행을 손쉽게 녹화하고 저장하며 재생할 수 있어 학습자의 수행에 대하여 피드백을 줄 때 매우 용이하다. 또 학습자 수행에 대한 자료를 누적적으로 쉽게 구축할 수 있어 학습자의 발전 과정을 자료화하는 것 역시 매우 용이하다. 학습자가 스마트 기기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담화 수행에 대한 사전 연습 과정을 녹화하고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수정하며 연습을 하면 실천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법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캠코더를 이용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면 보다 손쉽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번거로움으로 인해 잘 사용하지 않던 방법도 큰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되므로 결국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5. 말할 내용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개선

스마트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 개별 학습자가 스마트 기기를 교실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화법 교육에서 말할 내용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사가 수업 전 미리 학생들에게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를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라면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정

교사 디바이스에서 학습자 모두의 형성평가 문항에 반응하는 과정과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를 찾아오겠지만,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바로 자료를 찾아 말하게 하는 경우라면 스마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자료 검색을 하게 하고, 모둠 간에 검색한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을 정하여 발표하게 하기가 용이하다. 또 학생들은 말할 내용의 주제를 선정할 때 소셜-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청중 참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결국 스마트 교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말할 내용 준비에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최신의 풍부한 정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하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담화 수행을 위한 전 단계 활동으로 정보 검색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굳이 과제로 주지 않고 바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V.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교육 환경은 화법 교육의 내용 확장과 화법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스마트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을 제공하며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하는 등의 교육 체제는 분명 이전과 비교하면 외형적으로 발전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향후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추출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가지는 국가적, 사회적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30년 전 기성세대가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 기술이 이끌어 가는 세상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향후 30년 뒤 우리가 어

면 세상에서 살아갈지 정확히 제대로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바뀌지 않고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이 가장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좋은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전,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부족한 것, 미개한 것, 안 좋은 것 등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옆에 앉은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서까지 스마트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굳이 부담스러운 대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항존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한 서로 대면해서 말을 주고받는 구두 의사소통은 사라질 수 없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구두 의사소통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화법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오히려 학습자가 담화 상황, 참여자,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여 어떤 매체,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언행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적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14. 2. 6.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2007-79호[별책5], (주)세원문화사.
- 고유정 · 신원석(2011), 「온라인 게시판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토론의 비교 분석」,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17권 3호, 안암교육학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교육과학기술부.
- 김수진(2013),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2013학년도 중등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부산
만덕고등학교.
- 김영애(2011), 『스마트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숙 외(2012),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 교원 연수 교재』, 한국교육학술정보.
- 김혜정(2013), 「스마트 교육 환경과 국어교사의 전문성」, 청람어문교육학회 47회
학술대회자료집.
- 서영민 · 이영준(2011), 「스마트교육 정책의 찬반양론에 관한 교육적 고찰」,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5권 2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서혁(2013), 「스마트 교육 환경과 핵심역량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청람어문교육학회 47회 학술대회자료집.
- 최숙기(2013), 「스마트 교육 환경에 기반한 국어과 교수 학습의 방법적 전환」,
청람어문교육학회 47회 학술대회자료집.
- 허의옥 외(2013), 「스마트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권 1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Topscott, Don(2008), *Grown Up Digital*, 이진원 옮김(2009), 『디지털네이티브』,
비즈니스북스.

스마트 교육 시대의 화법 교육

전은주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요구하는 교수-학습 체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였다.

스마트 교육 환경은 화법 교육의 내용 확장과 화법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스마트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화법 교육에서 대량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대한 교육, 구어적 다중 담화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교육, 매체 사용과 채널 선택 전략에 대한 교육 등 교육 내용의 확장이 시도될 만하다.

또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담화 수행 동영상 제시, 담화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촉진, 청중 평가 혹은 상호평가 방법의 적용, 녹화기록법의 사용, 말할 내용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다양한 화법 교육 방법의 시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오히려 학습자가 대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담화 상황, 참여자, 내용에 따라 어떤 매체 채널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어 스마트 교육, 화법 교육, 듣기·말하기 교육, 다중담화텍스트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Smart’ Education Age

Jeon, Eun-ju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eaching-learning systems requested by the “smart”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xplored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change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in the field of Korean listening and speaking.

Smart education environment has a positive aspect by expanding the contents of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and supporting the diversification of the ways of speech communication teaching-learning. In order to realize the smart education, the educational contents needs to be extended into such fields as the education in mass communication capacity,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verbal “multi-discourse and multi-text”, and education on the strategy for using communication media.

Besides, a smart educational environment helps to realize various methods in the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by enabling the video-clipping of speech performance, communication between learners, application of the audience-driven or mutual assessment, employment of video-recording, and material collection for a speech.

However, in a smart education system, learners should to be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be educated on which media channel to be selected, depending on a specific speech situation, participants, and contents.

KEYWORDS smart educatio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listening-speaking education, multi-discourse and multi-text